

# “광양서 ‘혼자 즐기는 여행’ 트래블 라운징 체험을”

공적 공간서 여가 즐기고 휴식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소개  
트인 전망·광활한 풍경 한눈에  
“진정한 휴식·여행 가치 느끼길”

여름이 절정을 넘어가는 지금, 광양시가 한여름의 끝을 잡고 광양에서 즐기는 ‘트래블 라운징(Travel Lounging)’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라운징(Lounging)’은 라운지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타인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타인의 짐해 없이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개념으로, 이를 추구하는 여행을 ‘트래블 라운징(Travel Lounging)’이라고 한다.

광양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방해받지 않고 ‘함께&홀로’ 라운징(Lounging)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들로 백운산자연휴양림, 구봉산전망대, 전남도립미술관을 추천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높다랗게 위로 뻗은 원시림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으로 맨발 황토길, 치유의 숲, 목재 문화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가득하다.

구봉산전망대는 해발 473m 구봉산 정상에 위치해 탁 트인 전망과 광활한 풍경이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전망 맛집이다. 이곳은 360도 경관 조망으로 장엄한 일출과 일몰,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광양만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은 찾아온 이들에게 ‘프라스토르(영혼의 자유를 뜻하는 러시아어)’를 선사한다.

옛 광양역 터에 등지를 튼 전남도립미술관도 다채로운 작품들과 교감하면서 내면을 살피고 사색에 빠질 수 있는 격조 높은 공간이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만화가 허영만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초



최근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피서객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텐트를 치고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대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가 성황리에 전시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출신 작가 리너스 반 데 벨데(Rinus Van de Velde)의 ‘나는 옥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 전시가 오는 18일 폐막을 앞둔 터라 미술애호가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진정한 트

래블 라운징이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심리적 갈등이나 불편 없이 자신만의 여행을 즐기는 것이다”라며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휴식과 여행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광양 트래블 라운징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모래조각 포토존 ‘인기’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깨끗한 바다로 남해안 최고의 여름 피서지로 꼽히는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모래조각 작품이 완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모래조각 작품은 백사장 중앙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입구에 ‘인어공주의 성’, 완도해양치유센터 옆 이벤트 광장에는 ‘바다를 품은 마린 보이’가 8월 초 완성돼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

작품은 모래 조각가 최지훈 외 2명의 작가가 5일에 걸쳐 만들었으며, 자연 친화적 소재인 모래를 이용하고 작가의 기교가 더해져 비바람에도 끄떡없어 원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 피서객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센터 방문객과 맨발 걷기인 ‘여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람할 수 있도록 작품을 10월 중순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모래조각 작품과 신지 명사십리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과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지 명사십리에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16가지의 다양한 해양치유 테라피를 즐길 수 있으며, 18일까지는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 ‘미래 성장동력 발굴 주력’ 해남군 신규시책보고회

해남군은 2025년 신규시책보고회를 갖고, 해남군의 장기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시책 발굴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도정 흐름에 따른 지역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프로젝트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268개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미래 농수산업의 혁신사업의 발굴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성장사업, 미래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 등이 대거 발굴되어 관심을 모았다.

주요 시책으로는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성장동력 발굴사업인 2030프로젝트로 △농어촌수도 해남, 미래 비전선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김 연구개발(R&D) 공모사업 등 40건이 발굴됐다. 또한 지역발전 시책으로 △두륜산 권역 가로경관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리모델링 등 23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신규시책 205건이 보고되었다.

발굴된 시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남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보완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컨설팅 무안군, 47개 마을 대상 진행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각 읍·면 사무소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의 강점인 청정자원을 관리 보전하기 위해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컨설팅은 사업이 종료된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이 진행 중인 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된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 고유의 특성이 담긴 사업 발굴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 추천과 마을 만들기 방향성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여수시가 지난 13일 도서지역인 남면 금오도 5개 마을을 찾아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순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3일 도서지역인 남면 금오도 5개 마을을 찾아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섬까지 섬세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여수노인복지관과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등 8개 단체 및 기관과 개인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봉사자들은 말복 맞이 한방 닭백숙을 대접하고 안전한 약물복용 및 건강 체조

강좌, 방문 진료, 이·미용 서비스, 주거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섬 거주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오도 장지마을의 한 어르신은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에 안전봉도 설치해주고, 의사선생님이 집까지 와서 봐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먼 곳까지 방문한 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섬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자 중심의 복지사업이다. 지난 3월에는 법률이 제정되어 향후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여수시는 2023년 3월 전국 12개 지자체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5년 12월 말까지 총 27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 ‘목포랑 CAFE SHOW’ 목포시,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

목포시가 ‘목포 미식 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제2회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 ‘목포랑 CAFE SHOW’를 실시한다.

대한민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 ‘목포랑 CAFE SHOW’는 맛의 수도 목포에 걸맞는 디저트 메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오는 17일 목포 미식 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팀이 목포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디저트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연 심사는 5명의 전문가 심사단 및 50명의 시민품평단이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시민들이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디저트 메뉴를 선정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시상에는 △대상(1팀) 상금 600만원 △최우수상(1팀) 상금 400만원 △우수상(2팀) 상금 200만원 △입선(6팀)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장성군, 제봉산 등 주요 등산로 시설 정비

장성군이 제봉산, 축령산, 불태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용객들의 발길이 집중되고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 19개소 85.2km 구간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 시설 보수와 등산로변 풀베기 작업 등

을 시행한다.

먼저, 제봉산 등산로는 데크 계단 철거, 로프 펜스 교체, 야생화단지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계절 꾸준한 산행이 이어지는 축령산 등산로는 낡은 나무계단을 교체하고

로프 펜스를 새로 설치해 안전도를 높인다.

광주시와 가까운 진원면 불태산은 외지 방문객 비중이 높은 만큼, 산행객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소홀함 없 세심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